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7월 18일(금)
마더와이즈 동행과정 개강

7월 19일(토)
하반기 성장반 개강

7월 24일(목)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개강

7월 20일(주일)
제21기 사역훈련반 개강

7월 27일(주일)
바이블 키 구약 2 개강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이요한 2부/최영두 3부/김진영 4부/최동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다 함 께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 봉헌 및 1부/ 채금희 권사 2부/ 임상규 장로 3부/ 민봉식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눅 10:25-37 사 회 자
- 찬 양 2부: 참 좋으신 주님 시온찬양대
 3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당신이 리더입니다 4 남우택 목사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찬 양 주님 나라 임하시네 다 함 께
 세상 모든 민족이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이 형 준
 대표기도
- 찬 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약 1:1 [믿음은 행동한다1] 김진영 목사
 내가 누구인지 안다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손보영 장로 2부/ 임석화 권사 3부/ 조기동 장로 4부/ 박상혁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말씀: 고후 1:3-7
 제목: 위로받은 자, 위로하는 자
 기도: 김휘홍 집사 (다음 주 기도: 오 훈 집사)
 설교: 최영두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제21기 사역훈련반 신청서가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영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30개월 미만의 영아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 물품: 대형 소형 장난감, 책, 놀이용
교육용 아이템들
 - 기간: 7월 한달, 교회 사무실
 - 문의: 김은주 권사 021 321 457
-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영어로 통역하실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김진영 목사 027 214 1103
- 주방 봉사자 모집합니다.
 - 2/4째주 토요일 주방봉사 오전 9~12시
문의: 성현규 021 262 4760
 - 주일 3부 커피 준비와 친교실 정리 정돈
문의: 지영철 021 0275 0720
- 묵상교재 '복있는 사람 7/8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 교역자 동정: 안현수 목사 휴가
6월 26일 - 7월 11일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자 부부수련회 7일-9일, 로토루아



**성경적인 현숙한 여인으로
함께 성장해요!**

2025 마더와이즈 회복 & 동행과정

회복과정: 7월 24일~8월 28일(목) (6주간)
시간: 오전10시~12시, 저녁7:20~9:00
문의: 오전반 조길령 권사 020 477 5050
저녁반 오계주 집사 027 443 7793

동행과정: 7월 18일~9월 5일(금) (8주간)
시간: 오전10시~12시
문의: 전승희 권사 021 686 275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비전시니어
[청소년 알파]에 게스트를 초대합니다.
기간: 7월 19일 - 8월 23일(매주 토요일)
시간: 오후 6시 50분 - 8시 10분, 조이홀
대상: 청소년
문의: 조배영 집사 021 061 6569

2025 하반기 양육과정				
강좌명	강사	강의내용	시작기간	일시
한우리반	안현수 목사	처음 한우리교회에 오신 분들이 복음과 비전을 나누는 교인 필수과정	매월 첫주 (4주)	주일 오전 11:30
성경반	교역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 방향과 실재를 다루는 과정 * 제자훈련을 위한 필수과정	7.19 (10주)	토 10시 주일 9:30 수 10시
21기 사역 훈련반	남은택 목사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소양과 방법을 갖춰가는 과정	7.20 (12주)	주일 오후2:30
2025 하반기 훈련과정				
6기 바이블키 (구약 2)	이영민 목사	성경을 바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길잡이	7.27 (15주)	(주일) 오후 1:30

교우동정

- 소천
 - 고 배숙자 성도가 지난 6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이종선(윤영집)집사가 지난 3일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
 - 송현호 우미숙의 자 송건우 군과 표후영 양의 결혼식이 지난 5일에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이 임하시네 -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을 부르시네

세상은 아귀어둥 속에 - 빛되신 주 보기를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밟아라 주님의 영광 네게 임했

네 일어나 주 위해 서라 - 강한 용사여 - 주님이 너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 그 길에 비하라 -

영광의 주님 - 오 만왕의 왕 - - 곧 오시네 -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김지석	0210302829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중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윗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가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경	272008546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벤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참빛	34 섬나 호치민	나종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ell	심정임	2102386602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당신이 리더입니다.4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눅 10:25-37)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콜롬비아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콜롬비아, 산사태로 사망·실종자 30명...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중 가장 큰 사망자 규모

남미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재난 대응 당국(DAGRAN)은 “이번 주 베요와 메데인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22명이 사망, 실종자는 약 8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 24일 라네그라 계곡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 이후 발생했으며, 특히 베요에서는 50여 채의 주택이 토사에 매몰되며 피해가 컸다. 현지 언론 엘티엠포는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중 사망자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정부는 구조와 복구 작업을 위해 현장에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콜롬비아는 4-6월과 9-11월에 우기가 이어지며, 이 기간 폭우로 인한 범람 또는 산사태 등 피해가 빈번하다. 앞서 2023년에는 7월까지 자주 비가 오면서 수도 보고타 인근 쿤디나마르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고, 2022년엔 서부 리사랄다주에서 토사가 도로를 덮치며 버스 승객 등 27명이 사망했다(출처: 연합뉴스).

한국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성평등가족부, 헌법 취지 어긋나”...
 ‘양성평등’ 명칭으로 변경 촉구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남녀 간의 평등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혼, 성전환 권리, 포괄적 젠더 교육, 성 중립 화장실 등의 정책적 확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소멸의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 해체된다면 저출생이 가속화되며, 윤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출처: 기독교일보).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콜롬비아]** 산사태로 인명피해를 입은 콜롬비아를 긍휼히 여기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한국을 새롭게 하사, 마음과 행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이키며 주의 뜻이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셔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